

1967년 북한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

조우찬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 국문요약 |

갑산파는 1965년 말에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집력을 드러낼 기회가 있었다.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로동신문』에 보도되면서 1930년대 중반 박금철이 이끈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운동이 부각되었고 서채순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갑산파의 동정이 『로동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는 1965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이듬해 비서제 도입에 이어 문학예술 부문에서 혁명전통 논쟁이 불거졌다.

박금철의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과 연결된다.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대해서 갑산파는 혁명전통 다원화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1967년 봄부터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한 혁명전통교양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언론과 정기간행물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한 갑산파의 몰락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직결되었고 혁명전통은 여전히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틀로써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박금철, 갑산파 숙청,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 한인민족해방동맹, 혁명전통, 혁명전통의 유일성

*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머리말

1960년대 중반 북한에서 혁명전통에 대한 다원화 시도와 혁명전통 논쟁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1930년대 중반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통해서 연결된 박금철과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혁명전통의 공유는 불가능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무장투쟁활동과 비무장투쟁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박금철은 조국광복회와 제휴하여 국내 비무장항일세력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을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항일운동에 대한 자의식이 높았고 1960년대 중반 갑산파가 전개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에는 이러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혁명전통과 관련하여 항일무장투쟁이 강조되고 조국광복회 활동에서 무장투쟁활동이 부각될수록 비무장투쟁세력의 항일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기류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북한 권력층에서는 ‘보천보전투’를 기념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알력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가 시도되는 이례적인 분위기는 혁명전통에 대한 다원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이었으나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 차이는 박금철과 김일성의 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1965년 12월에 『로동신문』에 실리면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이 부각되었다. 이어서 장례식 기사에서 박금철의 정치적 위상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비서제가 도입되어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겼고 문예부문에서 혁명전통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1967년 3월 말부터 『로동신문』의 논조와 『근로자』, 『천리마』, 『조선문학』 등 북한의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에서도 편집 방향과 게재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치에 관한 연구 혹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Scalapino & Lee 1972; 和田春樹 1998; 이종석 1995; 鐸木昌之 1992, 2014)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북한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유일지도체제를 강조한 이종석과 유격대국가의 개념을 대입하여 설명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와 수령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체제의 특징과 혁명전통을 조명한 스킨스키 마사

유키(鐸木昌之)의 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러한 커다란 전환이 발생하기 전의 북한 정치와 사회에 나타난 미묘한 추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정치사회적인 특징과 추세를 연구한 논문에는 1960년대 초중반 북한의 제한된 다원성의 경향을 다룬 연구(이승현 2004)와 이 시기 『로동신문』의 보도에 주목한 연구(조우찬 2016a)가 있다. 이승현은 정치사회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북한의 1960년대 초중반의 분위기를 조명하였다. 조우찬은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로동신문』 부고기사가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혁명전통 다원화가 시도된 것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첫째, 혁명전통에 대한 박금철의 인식과 대응이 각각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금철이 무장투쟁세력의 혁명전통만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았던 배경은 비무장투쟁세력으로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역할이 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의 근원을 분석하고 박금철과 김일성의 관계를 조명할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조국광복회를 매개로 하여 김일성과 연결된 박금철은 만주의 장백 지부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조국광복회의 핵심 조직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지도자였다. 자파 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김일성은 조국광복회 활동을 발판으로 하여 정치활동에 나선 박금철의 반종파투쟁을 독려하였다. 반종파투쟁에 두각을 나타낸 박금철은 1950년대 중반부터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의 정치적 시효는 1967년까지였다.

둘째,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정점은 『로동신문』의 서채순의 부고기사였다. 그러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는 봉쇄되기 시작하였다. 두드러진 변화는 이듬해 하반기에 권력구조 개편에 이어 문예부문에서 불거진 혁명전통 논쟁이었다. 곧이어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관련된 행적들이 반당수정주의 혐의로 포장되었다. 조국광복회 활동을 통해 김일성과 접점이 있던 갑산파는 순식간에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도전한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갑산파의 축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김정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북한 문헌이라는 점은 재해석의 여지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문헌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의 비공개 석상에서

갑산파를 공격한 육성의 목소리가 김정일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김진계의 소설 『조국』에서 다뤄진 상세한 내용과 함께 오류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1967년 초부터 혁명전통의 확산이 전면적으로 나타났다.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한 갑산파의 몰락은 유일지배체제의 확립과 혁명전통의 일색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었다. 박금철의 실용주의적 입장은 김일성의 패권에 함몰되었다. 소련의 경제개혁 조치인 리베르만 방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박금철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한편, 대약진운동의 철저한 실패 이후 권력의 중심에 올라선 중국의 류사오치(劉少奇)는 홍(紅)과 전(專)의 대결에서 패배하였고 마오쩌둥은 전면에 재등장하였다. 곧이어 문화혁명이 발생한 중국은 김일성을 압박하였다. 이 무렵 남방삼각관계의 강화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김일성은 생존을 위한 안보를 내세우며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1967년에 확립된 혁명전통의 유일성은 현재 북한체제의 통치 시스템을 관통하고 있는 이념적 틀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혁명전통에 대한 갑산파의 인식과 대응

1. 조국광복회 무장투쟁활동에 대한 갑산파의 인식

1930년대 중반 갑산에서 위장활동을 하면서 항일조직을 이끈 박금철과 박달은 적극적인 항일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갑산파의 핵심 인물인 ‘리효순’의 동생이자 길주에서 갑산을 거쳐 장백에 정착한 ‘리제순’의 소개를 통해서 두 사람은 1936년 말에 김일성과 회합하였다(조우찬 2016b, 303-304). 일명 ‘리동석’으로 알려진 ‘리제순’은 권영벽과 함께 조국광복회 장백 지부의 책임자였다(姜德相 編 1976, 270-268). 박금철과 박달은 조국광복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갑산공작위원회를 한인민족해방동맹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산하에 반일회, 반일청년동맹, 아동대, 부녀회, 결사대 등의 하부조직 구축에 나섰다(조우찬 2016c, 184-185; 조우찬 2016d, 53-61). 조국광복회의 추진 배경은 제7차 코민테른에서

반파쇼 인민전선과 식민지에서의 민족통일전선 구축이라는 새로운 방침에 따라 중국공산당이 재만 한인의 민족항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조국광복회 결성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조우찬 2016d, 43-44).

조국광복회의 활동에서 김일성과 박금철과의 가장 큰 접점 가운데 하나는 ‘보천보전투’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교전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기습에 가까웠다. 습격으로 인한 희생자는 일본인 여아와 혜산 주재소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음식점 주인인 일본인 등 2명이었다(金正柱 編 1970, 767). 표적인 혜산 주재소를 공격하였으나 군사적 성과가 컸다기보다 당시 일제의 통치가 강화된 상태인 1930년대 중반 조선 강역에서 발생하였고 국내 한 언론사가 이를 보도함으로써 크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혜산 지국에서 취재를 계속 진행하여 후속 기사를 연이어 보도함으로써 더욱 부각되었다(동아일보 37/06/05-09, 37/06/13-14).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무장투쟁세력인 동북항일연군 제2군 6사가 조선 영내에 침투하여 혜산 주재소를 기습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지도자인 박금철과 박달을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사전에 침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박금철은 관내 지도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등 관련 정보를 무장투쟁세력에게 제공하였다(조우찬 2016c, 190). 기습 당일에는 주요 관공서에 대한 한인민족해방동맹 조직원들의 방화가 있었고 일제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총기, 탄약, 식료품, 포목 등 획득한 물자들을 운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 활동을 펼친 인물이 박금철과 박달이었다. ‘리송운’과 김왈룡은 박금철의 지시에 따라 물품 획득에 주력하였고 허학송은 방화와 물품 운반을 담당하였다(金正柱 編 1970, 660-661).

무장투쟁세력은 정보 파악과 인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박달은 무산 방면으로 이동 중에 있는 최현의 부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혜산과 갑산에 있는 일제의 병력이 대대적으로 출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무장투쟁세력에게 알려주었다(조우찬 2016c, 189). 한편, 박금철은 1937년 8월에 무장투쟁세력과 함께 갑산군 운흥면의 대오시천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보류하였다. 경비상황과 인원 동원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姜德相 編 1976, 291-292). 이와 같이 당시 무장투쟁세력의 독자적인 계획으로 국내에 침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으며 혜산주재소를 습격한 ‘보천보전투’ 역시 한인

민족해방동맹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은 기관지 『화전민』을 발행하고 직원들의 의식화 교육을 힘썼다(조우찬 2016c, 187-188). 조직 구축과 조직원 포섭에 있어서 조국광복회의 방침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항일통일전선을 지향한 조국광복회가 천도교 세력과 제휴하고 참여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간 반면에 한인민족해방동맹은 갑산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고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고수하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하부조직들은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에 구축되었고 사상적 검증을 통과한 빈농과 노동자들로 이루어졌다(조우찬 2016d, 51-52). 조국광복회가 반일사상을 지닌 세력뿐만 아니라 반일지주, 부농, 부르주아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조직원의 사상적 배경을 우선시하였고 충원 과정 역시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조우찬 2016c, 180).

박금철은 보천보전투 이후 1937년 7월 하순에 김일성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김일성이 무장봉기와 후방교란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박금철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주재소의 무기를 탈취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무장봉기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요청하자 박금철은 중국공산당원인 박달과 달리,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은 조선공산당이나 조국광복회 조직에 맞지 않으며 조선의 실정에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거부하였다(조우찬 2016c, 177).

서대문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은 박금철이 평양에서 활동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갑산 토박이로 평양에서 활동할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박금철은 길주 출신 몇몇 인물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한인민족해방동맹을 함께 이끈 박달과 휘하의 김왈룡은 길주 출신이었고 박금철의 지도 아래 있던 ‘리송운’과 허학송은 길주군에서 분리된 성진군 출신이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요양생활을 해야 했던 박달에게 김일성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박달과 김일성의 각별한 관계는 박금철의 등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박금철과 김일성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조우찬 2016e, 95-98). 박금철을 위시하여 갑산파 핵심 인물들이 중앙 정치에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한 것은 제2차 당대회였다. 여기서 박금철과 ‘리송운’이 당중앙위 중앙위원의 후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리효순’이 당중앙위 후보위원에 진출하였다(조우찬 2016e, 99).

이후 이들은 김일성의 무장투쟁세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조국광복회를 바탕으로 한 김일성의 직계세력으로써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반종파투쟁에서 박금철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였다. 박현영, 이승엽 등 남로당 출신 인물들에 대한 숙청에는 박금철 당 간부부장과 ‘리송운’ 최고재판소 검사총장, 방학세 사회안전상이 주도하였다(이정 박현영전집 편집위원회 04/8, 44-45).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혁명전통 다원화를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혁명전통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갑산파와 혁명전통의 유일성을 확립하려는 만주파는 더 이상의 접점을 공유하기 어려운 관계로 차단게 되었다.

2.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정점

북한 정권 초기 박금철과 김일성의 관계는 조국광복회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나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 차이가 명백해짐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소멸되었다. 혁명전통의 범주에 비무장투쟁세력의 활동을 강조하려는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정점은 1965년 12월에 『로동신문』에 실린 박금철의 부인인 서채순의 부고기사였다(로동신문 65/12/17). 박금철과 함께 1930년대에 항일운동을 펼친 박달의 부고기사(교원신문 60/04/02)에서 다뤄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당시 『로동신문』의 보도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이었다. 오랜 투병으로 와병 중이던 서채순의 활동과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면 당시 『로동신문』의 보도는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운동을 강조하고 박금철의 정치적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채순은 박금철의 지도 아래 결성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부녀회에서 활동하였다(姜德相 編 1976, 286-287). 서채순은 『로동신문』의 보도처럼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여성 조직원으로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인물은 아니었다. 한인민족해방동맹에는 ‘리경봉(일명 리용술)’의 여동생으로 유일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리금녀(일명 리용택)’의 활동이 단연 두드러졌다(조우찬 2016a, 203). 또한, 한인민족해방동맹의 여성 조직원 중에는 12년형을 선고 받은 ‘리금녀’ 외에도 다수의

여성 조직원들이 의식교육을 받고 활동하였다(조우찬 2016e, 116).

박금철은 갑산파의 핵심 인물들인 ‘리송운’, 김알룡, 허학송 등과 1930년대 중반에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을 함께 하였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한만 국경지대와 국내에서 활동한 ‘리효순’과 허석선과도 연결되었다(조우찬 2016e, 112). 서채순의 장례식에서 장의위원장은 당부위원장인 ‘리효순’이었고 사회는 평양시당위원장인 ‘리송운’이 맡았다(로동신문 65/12/19). 서채순의 사망은 갑산파의 결집력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가 봉쇄되면서 그들의 모든 활동은 얼마 후 숙청의 빌미가 되었다.

1966년 하반기에 문예부문에서 혁명전통 논쟁이 촉발되었다. 김일성(1983a, 13-28)은 천세봉의 『안개 흐르는 새 언덕』에 대해서 노동계급과 혁명가에 대한 형상을 잘못 구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혁명전통의 기원부터 잘못되었으며 인물의 성격 묘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고 전개 방식에 대해서도 질타하였다. 한편, 1966년 10월부터 『조선문학』에 게재된 연재소설로 갑산을 배경으로 하여 화전민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인 ‘평퍼물’이 1967년 초에 게재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1967년 갑산파 숙청 이후에 북한 문학예술은 유일사상체계의 근간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문학작품에 대한 창작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인민대중과 함께 하는 수령의 인간적 풍모를 그린 수령형상이 강조되었다.

III. 혁명전통 강화와 갑산파 숙청

1. 혁명전통 강화와 갑산파의 좌절

1967년 초의 북한 내부의 정세는 3월 말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에는 분명한 지향성이 담겨져 있었고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로동신문』에 게재될 무렵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갑산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사전에 감지되기는 어려웠다. 숙청 징후나 조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로동신문』은 3월말에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과 혁명전통교양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사상분야의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사람들의 의식 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당과 수령에 충성하는 근로자들이 『김일성선집』을 학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로동신문 67/03/30). 4월에 들어서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과 ‘항일유격대’가 기사 제목으로 제시되고 ‘항일빨치산’과 ‘항일무장투쟁’이 강조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영도를 강조하고 김일성의 지시와 출판물을 학습하자는 기사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을 다룬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5월에는 ‘항일유격대’와 ‘혁명전통’을 다룬 기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근로자』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인민무력건설을 강조(전형축 67/04)하거나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직성(엄기현 67/07)과 투쟁정신(하수홍·최원근 67/08)을 강조하는 글들이 연이어 게재되었다. 또한, 연극과 무용 관련 기관지인 『조선예술』은 1967년 제5-8호에 걸쳐 항일무장투쟁과 항일유격대를 눈에 띄게 강조하였다. 『천리마』는 제2호와 제3호 권두에 “오직 한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표제를 신설하였고 제4호에는 ‘일편단심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그이가 혁명의 진두에서 계시기에’, ‘불멸의 업적, 불패의 힘’ 등이 게재되었다. 제5호와 제6호에서는 보천보 관련 기사와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인 ‘사령부를 보위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자!”, ‘조국광복회의 불멸의 화불’ 등이 수록되었다.

혁명전통의 유일성을 확립하려는 김일성은 실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도 바꿔 놓았다. 실학의 봉건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 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은 박지원 등 실학자들의 문학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흐름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신채호와 허균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작품들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1967년에 봄을 기점으로 하여 편집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1967년에 발행된 『조선문학』 제4호에서 김일성(1967, 3-6)은 영웅의 형상화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문학에 항일무장투쟁의 혁신성과 유일성을 강조하였다. 혁신성이 반영된 민족 유산이라고 평

가를 받던 실학의 한계성을 비판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근로자』에서도 실학 관련 글들이 사라졌다.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이 1967년 1월에 게재(김창원, 67/01)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실학과 관련한 우호적인 글들은 게재되지 않았다. 몇 개월 후에 숙청된 박금철의 혐의 가운데에는 봉건유교사상으로 전락한 실학을 중시하면서 『목민심서』를 유포한 점이 포함되었다. 김일성(1968, 109)은 혁신은 보수반동적인 것과의 투쟁을 수반하고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낙후한 것이 방해하므로 혁신 그 자체가 낙후한 것, 보수주의적인 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며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전통에 대한 강조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북한에서는 혁명전통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1960년대 초에 혁명전통과 관련하여 “공산주의 교양에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의의”와 “혁명 전통 주제의 가일층의 심화를 위하여”가 『근로자』에 게재되기도 하였다(‘리능훈’ 61/06; 김재하 61/08). 그러나 이 무렵만 하더라도 혁명전통의 일색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갑산파는 조국광복회 활동과 관련된 자신들의 항일운동이 혁명전통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기보다 오히려 과감하게 혁명전통 다원화를 시도하였다. 『일편단심』은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일제강점기 수절을 칭송한 작품이었고 1967년 초에 연재가 갑자기 중단된 『평포물』은 갑산 화전민의 역경과 애환을 담고 있는 소설이었다. 이 외에도 『나비쌍쌍, 제비쌍쌍』은 박금철과 ‘리효순’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비판받았고 학습지 『향토사』는 지방주의를 조장하였다고 비난받았다. 영화 『내고향』은 갑산파를 부각시켰고 함경도 지방색이 짙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여 착취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지주에게 속박을 당하고 친일파들에게 멸시를 당한 농민들을 그렸다. 영화 속에서 농민들은 항일유격대와 함께 친일파를 일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우찬 2016a, 208). 이 영화가 갑산파와 관련이 있다고 비판받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활동을 연상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가 무위에 그치고 박금철과 김일성의 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진 것은 공유가 불가능한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혁명전통의 유일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으로 전환되면서 혁명전통

다원화가 대두되었던 양상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혁명전통은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기제로써 당교양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혁명전통은 혁명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가적 품성의 배양 등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핵심적 교육이 되었다(정영철 2001, 107).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강조되면서 당원들에게 당정책을 체화시킴과 아울러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해 효과적인 당 정책 학습이 요구되었다(하수홍·최원근 67/08, 7). 혁명전통교양은 직접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혁명투쟁한 사람들과 같은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김일성의 언급이 강조되었다(엄기현 67/07, 18).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박금철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에 대해서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도전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금철, 김도만 등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없애라고 내리먹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여러모로 방해하였다. 또한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지시를 아래 당조직들에 내려보내었고 혁명전통 교양자료들의 출판과 혁명전통 교양을 방해하였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347).

2. 갑산파 제거와 김정일의 역할

김정일(1992, 232-233)은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에 대해서 ‘어떤 자는 아침 분자들을 내세워 자기의 전기를 쓰고 생각을 꾸리게 하였으며 자기 처를 원형으로 하는 『일편단심』이라는 연극까지 만들어 공연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며 김일성의 유일지도성을 훼손한 박금철을 지목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정주의 병폐가 심한 문학예술에 대해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을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에 지시하였다. 또한, 비밀리에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박금철의 수정주의적 지시가 담긴 문건과 자료에 범죄의 본질과 근원이 있다며 비난하였다(탁진·김강일·박홍제 1994, 143-144).

갑산파 숙청 과정과 관련하여 김정일이 사전에 계획하고 집행했다고 알려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된 바가 없다. 영화 등 예술영역에 관심을 가진 김정일이 갑산파를 강조한 작품들의 문제성을 최초로 포착하고 갑산파의 제거에 나섰으며 갑산파를 정탐하여 축출 과정에 탁월한 수훈을 세웠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갑산파 숙청 과정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악하기 힘든 당시 북한의 정황이 아니라 대체로 북한의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599). 북한 문헌과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갑산파 숙청에 김정일이 직접 개입하였고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부각시키고 있다(정영철 2005).

북한 문헌에서는 종파적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간파한 김정일이 갑산파가 도입한 가화폐제도의 수정주의적 본질과 그 위험성에 대해 가장 먼저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근로자 68/05, 6). 이러한 점에서 갑산파 제거에서 김정일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 대한 반론과 재해석이 가능하다. 갑산파 숙청을 김정일이 총괄하고 수훈을 세웠다는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 저작물의 특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문헌의 특징은 시기에 따라 내용이 변조되거나 개작되어 출간된다. 강광식(서대숙 외 2001, 231-234, 237-238)은 유일사상체계의 심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술의 무오류성이 강조되고 규범적 기능을 확보한 김일성 저작물들의 경전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유일사상에 대한 김정일의 교시를 통해서 김정일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려는 양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대숙(2000, 179-186)은 당시 김정일의 연령과 사회경력을 보았을 때,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이며 상당한 과장이 있다고 보았다.

김정일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는 북한 문헌의 공통점은 김정일이 갑산파에 대한 내사를 탁월하게 진행하여 종파적 수정주의자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과 같이 상세한 활동보다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는데 치중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당 안에 잠입한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시고 예리한 정치적 안목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반당수정주의 분자들의 정체를 적발해 나가시였으며 그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철저히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도록

이끄시었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472).

김진계(1990, 80, 84)는 비공개로 진행된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의 혐의를 폭로한 녹음 내용을 청취하던 중에 젊고 날카로운 음성에 주목하여 옆의 당간부에게 확인해 보니 수상 동지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대회에서 갑산파를 공격한 육성의 주인공을 김정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숙청과정에서의 김정일의 역할과 결부되어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공직 경력은 대학 졸업 후에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지도원을 있다가 정무원 제1부수상인 김일의 참사실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66년 2월에 선전선동부 지도원을 거쳐 1968년 2월에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이 되었고 1969년에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이어 1970년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 1972년에 당 선전선동부장이 되었다(이우영 2003, 379).

김정일은 1964년 12월 8일에 김일성에게 영화예술에 관한 실태 보고를 한 데 이어 김일성은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조선극영화촬영소에서 소집하였다(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1994, 105).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정일이 갑산파 숙청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선출된 10명의 비서 중에는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김영주가 포함되었다. 김영주의 역할이 조명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김정일은 정치활동을 막 시작한 상황이었다.

김정일이 후계문제에서 혁명전통을 승계하는 유일지배체제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다. 군부의 지지를 받은 김정일은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당조직을 장악하였다(鐸木昌之 1992, 84-85). 김정일은 1970년대 초에 영화와 혁명가극 제작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하며 직접 지었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작품들을 영화와 혁명가극으로 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은 연극과 소설에 이어 새로운 장르인 혁명가극으로 제작되었고 『꽃파는 처녀』는 교향곡으로도 제작되었다. 김정일이 만주파 원로들에게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항일무장투쟁을 부각시킨 『피바다』와 같은 영화와 혁명가극을 통해서 혁명전통의 적합한 승계자로 비취지도록 두각을 보인 것이 주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필명이 박병엽이자 북한에서 정무원 교육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신경완(신 동아 91/06, 396-398)은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의 죄상을 폭로한 인물은 김정일이 아니라 김일이었으며 갑산파를 내사한 것은 당시 김영주 조직부장이었다고 한다. 한편, 갑산파 숙청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1967년 2월에 불거진 허석선의 기용 문제라고 보았다. 1930년대 말에 허석선의 행적과 관련하여 항일유격대의 근거지를 밀고했으며 변절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용할 수 없다는 김일성의 주장에 대해서 박금철과 ‘리효순’이 크게 반발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민주파 최용건, 김일, 최현, 오진우, 김광협 등이 갑산파 제거에 나섰다라고 한다. 위의 증언대로 허석선 기용 문제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숙청 전에 발생한 김일성과 갑산파의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미루어 볼 수 있다.

IV. 갑산파 몰락과 북한체제의 변화

1. 1967년 북한의 대내외 정세

1960년대 중반 한반도 정세는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강화와 중·소 갈등 등으로 인한 북방삼각동맹의 약화 속에서 북·중 관계 악화가 표면화되고 있었다. 자주와 주체를 강조한 당시 북한 외교는 등거리외교를 전개하면서 대남 혁명노선을 추구하였다. 4.19와 군사혁명, 6.3 시위 등 남한의 정세에 주목한 김일성(1982, 316-329; 근로자 65/08, 24-31)은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1960년대 중후반 한국에서 통일혁명당 활동에 기대를 하였고 혁명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베트남에 대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일전선을 주장하였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한국을 의식하여 북한도 북베트남에 공군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발발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혁명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리효순’이 숙청된 후, 북한 군부 강경파가 주도하는 대남 무력 도발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1967년 6월에 해상을 통해 삼척에 침투한 간첩

20명을 사살된데 이어 무장간첩선이 나포되고 전투가 벌어진데 이어 전북 임실과 강릉과 영월에서 무장간첩과 교전이 발생하였다(신종대 2002, 228-229).

1950년대 말부터 북·중, 북·소 관계는 반전되었다. 소련의 대북 원조가 삭감됨에 따라 1961년부터 시작된 제1차 7개년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1962년 12월 10일-14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방침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한·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이어져 북한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자 북한은 1967년부터 군사비를 30%로 증액하고 인민경제비를 70%에서 50%로 대폭 감소시켰다(이성봉 2004, 192-196).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은 이미 제2차 당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공식화하고 빨치산세력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에 반영되었다. 북한의 모험주의는 한국의 반공지향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무렵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국내정치는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였다(신종대 2004, 99-100).

다음 <그림 1>은 1967년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1> 1967년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갑산파의 좌절

◇ 중·소 갈등의 심화와 북·중, 북·소 관계 변화(자율성 강화) 동북아 정세	실용주의와 균형 중시 <좌절> 당 간섭의 배제, 중공업 우선 정책 탈피(국방비 삭감), 균형 발전(농업·경공업·소비재) 중시	자주성과 주체 강조 <강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중·소를 각각 비판(등거리외교 전개) 유일지도성, 혁명전통의 일색화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 <좌절> 한인민족해방동맹 활동의 부각실패 → 문화혁명의 북한식 수렴(紅과 專, 劉少奇 실각)	국방력 중시와 긴장 유발 <강화> 베트남전 지원, 대남 혁명노선 경제·국방 병진노선 채택 (중공업 우선 정책)

갑산파의 활동 권력 헤게모니 양상 김일성의 패권

출처: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변화 추이를 2×2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표로 구성함.

1963년 초부터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1964년 10월 사이에 최용건과 류사오치(劉少奇)의 북·중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북한은 중·소 분쟁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국을 적극 지지하였다(정진위 1985, 95-96). 류사오치는 1963년 9월에 방북하여 북한의 자력갱생의 혁명적 정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일치한다고 평가하였다. 소련에 대해서 국제분업을 주장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반대한다며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과 밀접하게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히라이와 순지, 이종국 역 2013, 131-132). 그러나 북·중 관계는 베트남전으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이 확대되자 중국은 1965년에 비밀 파병의 형식으로 베트남에 후방지원과 수송을 담당하는 병력을 파병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려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북한은 북베트남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비난하고 대남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였다(이상숙 2007, 159-162).

류사오치 몰락 이후 문화혁명 시기인 1967년 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홍위병들이 베이징에서 김일성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959-960). 북한은 홍위병의 비판에 대응하여 정치적 불안 상태를 조성하려는 허위선전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와 인민, 군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으며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로동신문 67/01/27). 양국 관계는 큰 손상을 입었고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악화되었다(이종석 2000, 244).

북한 경제는 1963년부터 침체하기 시작하여 196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동요와 불만이 나타났다(이태섭 2009, 205-206).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갑산파는 일선 현장에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을 시도하였다. 갑산파의 실용주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입장은 경제보다 국방과 이념을 우선하는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대남 혁명노선과 배치되었다. 한편, 갑산파가 제거된 후,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당적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중앙 집중제에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에 이르러서였고 관료적 조정기제가 다소 완화되고 시장조정기제가 나타났다(이정철 2002, 79).

1967년 5월에 김일성은 당사상사업부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북한식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강조하였다(최 성 1993, 108). 여기서 강조된 것은

북한의 혁명적 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따른 주체적 입장에서 과도기론을 제기한 것으로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의 전 기간은 물론 과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전미영 2000, 60). 이와 같이 김일성이 제기한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은 주체를 강조하며 김일성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해 고안되었다.

2. 갑산파 축출과 혁명전통의 일색화

갑산파는 당 중앙위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분야 책임자인 박금철 당비서, ‘리효순’ 대남 국제담당 당비서, ‘리송운’ 평양시당위원장, 김왈룡 직업 총동맹위원장, 허학송 황해도당 위원장, 허석선 당 과학교육부장을 비롯하여 유학과 관료들인 김도만 사상담당 당비서 겸 당 선전선동부장과 고혁 내각 부수상 겸 문화예술부장, 박용국 국제부장 등이 제거되었다. 스탈린주의자인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거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지향하는 흐루시초프의 노선을 추종한 이들은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에 가세하였다.

박금철에 대한 혐의는 당 안에 부르주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고 책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함경도 출신을 등용하여 당 인사정책을 무시한 연고주의 인사를 통해서 반당적인 지방주의와 종파주의를 발현시킨 점, 수정주의 경제이론을 유포한 점, 혁명전통에 입각한 유일사상체계를 훼손한 점, 봉건유교사상을 주입한 점, 남한 혁명과 통일문제에 우경적 수정주의 입장을 보인 점, 천리마운동을 방해한 점, 변절의 경력과 개인우상화와 개인 비리 등이 지목되었다(신경완, 신동아 91/06, 397-398). 김일성(1983b, 330)은 박금철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왜곡하여 향토주의를 고취하면서 청산된 지주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며 함으로써 부르주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전파하고 지방주의를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봉건주의 사상 유포는 당 간부들에게 『목민심서』를 필독 문헌으로 읽게 했다는 점이었고 검덕광산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에서 내린 목표량을 무시했다는 점은 수정주의와 관련되었다. 또

한, 당력사연구소가 갑산에 박금철의 생가를 만들었다는 것과 그의 처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인 박금철에게 충성한 내용을 담은 『일편단심』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것은 박금철의 개인 우상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탁진·김강일·박홍제 1994, 141-142).

김진계(1990, 79-81)의 『조국』은 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 대해서 3급 기업소 당비서 이상의 당간부들에게만 녹음테이프를 청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금철이 문예총이 만들어 사용해 온 인민군 행진곡의 가사에서 당이 만든 구호인 ‘천리마’란 말과 ‘일당백’이라는 말을 삭제하여 천리마운동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조직비서로서 도당 책임비서와 군당 책임비서에 측근을 배치하였고 황해북도 도당 책임비서에 갑산 공작위원회 활동을 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던 원상정을 등용한 점, 평북도당과 함북도당 책임비서의 등용과 관련하여 당 인사정책을 위배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큰 양옥집을 세웠고 아내를 혁명가로 과장하여 비석을 세워 부각시켰으며 24세의 만딸을 경략연구소에 배치하여 김봉환 박사 등 경략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하여 의학박사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 『목민심서』와 같은 반동적인 책을 학습하라고 지시하여 봉건적인 사상을 유포하였고 조국광복회 활동으로 권영벽과 ‘리제순’은 사형을 당했으나 전향한 박금철은 출역하면서 작업반장까지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상세하게 혐의를 다루었으나 박금철의 선고형량에 오류가 있다.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은 박금철은 변절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자 대표로 선발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복역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박금철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다(金正柱 編 1970, 581).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은 『조국』은 허구성과 통속성이 가미된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70년에 거제도에서 체포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고령자로 석방된 김진계를 최후의 남파공작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리효순’은 중앙당 연락국장으로서 대남공작에 실패하였고 특히, 적극적인 대남공작을 추진하지 못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점과 김일성의 사상에 따르지 않았으며 당 정치노선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받았다(강인덕 1980, 165). 북한은 박헌영과 이승엽의 남로당은 미제 간첩의 당이라고 비판하고 공작원을

침투시켜 지하당을 새로 조직하였다. 1958년부터 ‘리효순’은 남한 내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였다(와다 하루키, 남기정 역 2014, 171). 당 과학교육부장인 허석선에 대해서 김일성은 과학연구사업과 교양교수사업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가 발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고 당의 정책을 왜곡하여 집행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도 높은 회상기 학습을 요구하였다(이찬행 2001, 243).

1967년 중반부터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양상은 그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에 대한 찬양과 우상화로 이어졌다. “그 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다”(로동신문 67/07/21) “조선의 어머니”(로동신문 67/08/17) 등이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같은 해 『천리마』 제10-12호의 ‘새력사의 아침’에서 김일성 일가와 김형직의 활동을 다룬 기사가 수록되었다(천리마 67/10).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10대 강령과 10대 정강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국가환경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고 독려했다(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78).

갑산파 숙청의 여파는 권력 상층부뿐만 아니라 하층 당원에까지 미쳤다. 1968년 중순 무렵에는 중견 지방 간부들의 약 3분의 2가 공석이었다(강인덕 편 1980, 165). 박금철은 오지의 노동교화에 처해졌고 갑산농장에 배치되었다. 리효순은 가구공장 4급기업소 부지배인으로 좌천되었다(김진계 1990, 85). 노동자 신분이 된 박금철과 ‘리효순’은 얼마 후에는 종파주의자 집단수용소인 특별교양소에 감금되었다(이찬행 2001, 244). 197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는 수령의 혁명역사를 내세운 『혁명의 려명』, 『고난의 행군』, 『백두산 기슭』 등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해방 후를 다룬 30여 편이 넘는 장편소설들이 총서 형식의 『불멸의 력사』를 구성하면서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강진호 외 2009, 24-25).

V. 맺음말

1965년 말에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로동신문』에 보도된 것은 혁명전통 다원화가 시도된 것으로 갑산파의 결집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비서제가 도입되어 집체적인 권력구조가 변화된데 이어 문예부문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유일성, 정통성, 선명성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다.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는 더 이상 파급되지 못하고 해체와 실패로 접철되었다. 1967년 봄부터 혁명전통교양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 해 5월에 갑산파와 이들의 동조세력들은 불시에 축출되었다.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지향점은 혁명전통의 범주에서 배제되지 않고 권력 분점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소 갈등 속에서 자주와 주체를 강조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한 김일성의 패권과 충돌하였다. 김일성은 혁명전통 유일성 확립을 통해서 체제 강화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박금철은 무장투쟁세력과 연대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산하에 하부조직들을 구축하고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독자적인 항일운동을 펼쳤다. 조국광복회의 무장투쟁활동은 비무장투쟁세력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개되었고 정보와 인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장투쟁활동에 대한 박금철의 인식은 혁명전통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에 반영되었다.

둘째, 갑산파의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의 종결은 북한체제가 변화하는 분수령이었다. 갑산파의 몰락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상적 일색화를 통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의 확립이 마련되는 기회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갑산파 숙청과 관련하여 김정일의 주도적 역할을 제기한 주장과 견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북한 문헌의 특성을 파악하여 당시 상황을 재조명한 결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혁명전통교양의 일색화가 진행된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구축되어 가면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에도 혁명전통의 일색화는 북한 정치를 관통하는 유효한 개념이다.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적절한 도구이자 충실하게 작동하는 통치 기제인 것이다.

북한에서 혁명전통의 유일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에 대한 비판은 아예 불가능한 정치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혁명전통은 백두혈통의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이념적 틀로써 활용되고 있다.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혁명전통의 위상은 불가침의 영역을 넘어서 신성한 권위의 상징처럼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67. “우리문학예술에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문학』 제4호.
- 김일성. 1968.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전국 생산혁신자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선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1965년 4월 14일).” 『김일성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3a. “혁명주체작품에서의 몇 가지 사상미학적 문제, 예술영화 『내가 찾은 길』 첫 필름을 보고 영화예술인들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3b. “당대표자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7년 6월 15일).” 『김정일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탁진 · 김강일 · 박홍제. 1994. 『김정일 지도자 1』. 평양: 평양출판사.
- 김일성. 19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1965년 4월 14일), 『근로자』 제8호, 2-31.
- 김재하. 1961. “혁명 전통 주제의 가일층의 심화를 위하여.” 『근로자』 제8호, 91-96.
- 김창원. 1967.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 『근로자』 제1호, 39-45.
- 리능훈. 1961. “공산주의 교양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가지는 의의.” 『근로자』 제6호, 45-50.
- 엄기현. 1967.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근로자』, 제7호, 9-18.
- 전형축. 1967.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인민무력건설의 전통.” 『근로자』 제4호, 13-20.
- 하수홍 · 최원근. 1967.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근로자』 제8호, 23-29.

- 편집국, 1967.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자.” 『근로자』제8호, 7-14.
- 편집국, 1968.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 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자.” 『근로자』제5호, 2-9.
- 편집국, 1968. 『근로자』제5호.
- 편집국, 1966. 『조선문학』제10-12호.
- 편집국, 1967. 『조선문학』제1-4호.
- 편집국, 1967. 『조선예술』제5-8호.
- 편집국, 1967. 『천리마』제2-3호, “새 력사의 아침 1.” 제10호.
- 편집국, 1960. 박달의 부고 기사. 『교원신문』(4월 2일).
- 편집국, 1965. 박금철 부인 서채순의 부고 기사. 『로동신문』(12월 17일).
- 편집국, 1965. 박금철 부인 서채순의 장례식 기사. 『로동신문』(12월 19일).
- 편집국, 1967. 『로동신문』(1월 27일), (3월 30일).
- 편집국, 1967. “그 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다, 강반석 여사를 회상하며.” 『로동신문』(7월 21일), “조선의 어머니.” 『로동신문』(8월 17일).

2. 국내 및 해외 자료

- 강인덕 편, 1980. 『북한전서: 1945-1980』.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강진호 외, 2009. 『북한의 문화 정전, 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 서울: 소명출판.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8.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2집. 서울: 국토통일원.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 1』. 서울: 선인.
- 김진계 · 김응교, 1990. 『조국』 상 · 하. 서울: 현대문학사.
- 로버트 스칼라피노 · 이정식 저, 한홍구 역, 2015.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돌베개.
- 서대숙, 2000.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 서대숙 외, 2001. 『북한현대사 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M&B.
- 신종대, 2003.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19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종대, 2004. “북한 요인과 국내정치: 1968년 북한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3호, 93-130.
-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 남기정 역,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 와다 하루키 저, 남기정 역. 2014. 『와다 하루키의 북한 현대사』. 파주: 창비.
- 이상숙. 2007.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제3권 2호, 151-172.
- 이성봉. 2004. “1960년대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과 정치체제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4권 제2호, 189-210.
- 이승현. 2004. “1960년대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유일사상의 대두: 제한적 다원성에서 유일체제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북한현대사 1』, 343-368. 파주: 한울.
- 이우영. 2003. “북한의 문화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역음. 『북한의 국가전략』, 364-414. 파주: 한울.
- 이정박헌영전집편집위원회. 2014. 『이정 박헌영 전집』 제8권. 서울: 역사비평사.
- 이정철. 2002. “북한의 경제 발전론 재론: 1960년대 경제조정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5권 1호, 47-87.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식.
- 이찬행. 2001. 『김정일』. 서울: 백산서당.
- 이태섭. 2009.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 전미영. 2000. 『김일성의 담화분석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정당화 전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철. 2001.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철. 2005.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 정진위. 1985.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범문사.
- 조우찬. 2016a. “1960년대 중반 북한 혁명전통 다원화 시도와 혁명전통 논쟁: 박금철의 처 서채순 관련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0권 제1호, 195-221.
- 조우찬. 2016b.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중반 함남 갑산 지역의 항일운동.” 『사학연구』 제121호, 271-312.
- 조우찬. 2016c. “1930년대 중반 한인민족해방동맹의 항일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재평가.” 『동북아역사논총』 제54호, 169-206.
- 조우찬. 2016d. “1930년대 중반 함경남도 갑산 항일운동 조직의 체계화 과정.” 『역사학보』 제230집, 39-66.

- 조우찬. 2016e. “북한 갑산과 연구: 박금철과 구성원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 19권 제1호, 87-135.
- 최 성. 1994. 『수령체계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저, 이중국 역. 2013. 『북한·중국 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선인.
- 편집국. 1937. 『동아일보』(6월 5-9일, 6월 13-14일).
- 신경완. 1991. “결에서 본 김정일.” 『월간 중앙』 6월호.
- Scalapino, Robert A., Lee, Chong-sik. 1972. *Communism in Korea Part II*,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h, Dae-Sook. 1988.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姜徳相 編. 1976. 『現代史資料 30, 朝鮮 6, 共產主義運動(二), 抗日パルチザン』. 東京: みすず書房.
- 金正柱 編. 1970. 『惠山事件判決書: 朝鮮統治史料 第6卷』.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 1992.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 共鳴』.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2014. 『北朝鮮首領制の 形成と 變用: 金正日から 金正恩へ』. 東京: 明石書店.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1998. 『北朝鮮: 遊撃隊國家の 現在』. 東京: 岩波書店.

투고일: 2017.02.14. 심사일: 2017.02.27. 게재확정일: 2017.04.03.

The end of attempt to diversify the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Kapsanpa*(*kapsan*-faction) in North Korea in 1967

Cho, Woo Chan |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volutionary tradi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Kapsanpa*(*kapsan*-faction) in North Korea in 1967. After the *Kapsanpa* was purged, in North Korea, reinforcement of unprecedented revolutionary tradition was developed. At the end of 1965, the *Kapsanpa* had the opportunity to publicly show their power. An obituary of Seo chae-soon, the wife of Pak Geum-Cheol, was reported in the “Rodongsinmun(Workers’ newspaper)”,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the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led by Pak Geum-Cheol in the mid 1930’s was highlighted, and the activity of the *Kapsanpa* in connection with Seo chae-soon’s funeral was reported in the “Rodongsinmu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ecretary system the following year, the controversy over the revolutionary tradition of literature and art emerged. Since the spring of 1967, the revolutionary tradition emphasizing the anti-Japan armed struggle began to emerge, and a change in press and publication appeared.

Key Words | Pak Geum-Cheol, Purge of the *Kapsanpa*(*kapsan*-faction), Attempt of diversification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 Korea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Revolutionary traditional, Uniqueness of the revolutionary tradition